

무선 인터넷 공짜구역 팍팍 늘다

KT 와이파이존 광주·전남 기차역 등 350곳 확대 스마트폰 이용 고객 데이터 요금 크게 절감할 듯

KT가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클라우드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SK텔레콤도 연말까지 와이파이존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무선인터넷 사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올해 와이파이존을 집단상가와 할인매장, 터미널, 호텔,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6천900여곳, 하반기 7천300여곳에 추가로 구축해 연말까지 2만7천3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1만3천800여곳인 현재의 2배 정도 규모다.

광주·전남지역도 현재 350곳인 와이파이존을 연말까지 7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요 설치 대상은 백화점과 기차역, 대형마트 등이다. 클라우드존 이용자가 지난해에는 30만명이었지만 아이폰 출시 이후 83만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SK텔레콤이 초당과 급제를 도입한 데 맞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와이파이망 경쟁력을 내세운 전략인 셈이다.

KT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 고객들이 데이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 관계

자는 “아이폰 고객 50만명의 무선데이터 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와이파이존 이용률이 52%에 이른 다”고 밝혔다. 월평균 442MB 중 229MB를 와이파이존에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1인당 월평균 1만1천724원, 연간 14만688원의 데이터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KT 개인고객부문 표현명 사장은 “아이폰이 도입된 후 스마트폰 고객의 전 연령대에서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고르게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클라우드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객 홍보와 수요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무선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도 연말까지 전국에 자체 와이파이존 10만여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인사업체나 대학 등 FMCC(유무선통합) 협약을 체결한 곳에서만 무료인터넷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와이파이존을 대폭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500만여개에 달하는 사설 AP(무선접속장치)가 존재하고 있어 우선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고객들의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



KT 직원들이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클라우드존)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KT 제공)

기 위해 와이파이존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와이파이존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光銀 런치미팅
광주은행 직원들이 15일 광주시 동구 본점 20층 직원식당에서 '런치 미팅'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부서간 교류, 팀워크 강화를 위해 매월 2차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광주은행 직원들이 15일 광주시 동구 본점 20층 직원식당에서 '런치 미팅'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부서간 교류, 팀워크 강화를 위해 매월 2차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시 SSM진입 막겠다

민간단체와 공동대응

광주시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최근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 민간단체와 자치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 유통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중소기업체가 공동으로 SSM 진출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

다. 대책위 위원은 슈퍼마켓협동조합,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중소기업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 YMCA, YWCA 등 시민단체와 시청, 구청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상황을 설치해 대기업 진출상황과 SSM 영업실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축산물 직거래 금요장터 개설

이번 달부터 매주 금요일 광주 상무지구에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개설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6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제일은행 앞 광장에 ‘전남우수농축산물 금요직거래 장터’를 개설,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장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일몰까지다.

이 장터에서는 농축산물을 시중가 보다 10~20% 싸게 판매한다.

또 농축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오이&오리데이(5월 2일), 구구데이(9월 9일), 사과데이(10월 4일) 등 ‘데이(Day)마케팅’도 전개한다.

김용복 본부장은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직거래 장터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penfoot@

광주 국제 광산업전시회 성료

120개업체 참가·사흘동안 관람객 2만명 LED 등 712억 수출 상담·260억원 계약

국내 유일의 광산업 전문 전시회인 국제광산업전시회가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0국제광산업 전시회는 올해 9회째로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국내외의 12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사흘동안 관람객 2만여명이 다녀갔다.

또 광산업진흥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상담회에는 200여명의 광관련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국내 광통신 및 LED조명업체와 활발한 상담을 벌여 260억원어치 계약 체결을 비롯해 712억원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에는 녹색산업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LED조명 및 태내광가입자망(FTTH) 제품이 대거 선보였다.

특히 미생물 배양용 LED조명기기, 레이저박공 고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광전송시스템 등 광기반 융합제품 등이 다양하게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국제광기술퍼포먼스에서는 미국·유럽·중국·일본의 해외연사 및 국내 전문가들이 LED·태양전지·광통신·선박용 광산업 등에 대한 기술동향을 소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ib.com

본점: 061-227-9940
 송정점: 061-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제주일영투어와 함께 떠나는
민박집중반/일대일/셀링
1인 셀링, 2인 셀링 (4인기준)

1인 735,000원 (4인기준)
 2인 1,350,000원
 4인 2,800,000원

제주일영투어 T. 061-227-2277

건물의 수명과 가치를 Up 합니다
IPACO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외벽방수, 타일, 지붕, 배수

본사의 외벽방수 리모델링은...
 1. 외벽방수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수명을 연장합니다.
 2. 외벽방수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가치를 높입니다.
 3. 외벽방수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안전을 높입니다.
 4. 외벽방수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미관을 높입니다.

511-0444, 010-5603-0405